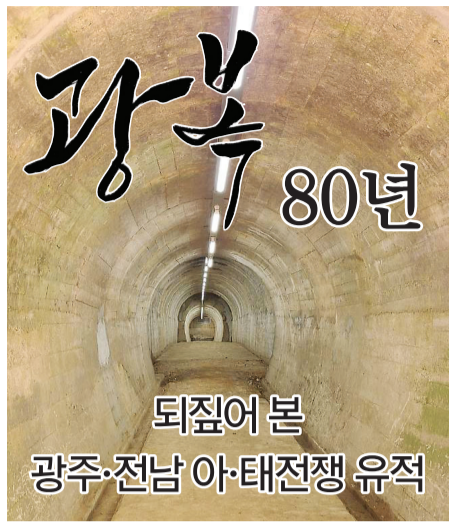


# 일제, 상무지구에 軍 비행장... 조종사 양성기지로 썼다



(3) 서구 곳곳 일제 군사시설 흔적

## 치평동 일대 항공기지 흔적

민간 항공 부지, 1942년 군 비행장 변경  
현 상무소각장·서부경찰서·DJ센터 일대  
활주로·숙소 18채 등 총 면적 110만㎡

건설 과정 조선인 강제 동원해 노동력 착취  
5·18편 시민 탄압 '군부 주둔지'로도 사용  
1995년 상무대 이전과 함께 역사속으로

광주시 서구 일대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항공기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무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활주로와 지휘부 시설 등 항공기지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서구 화정동과 치평동 일대 탄약고와 연료고 등 군사 시설은 아직도 견재해 일제 강점기를 증언하고 있다.

광주 항공기지의 활주로는 현재 상무소각장과 광주서부경찰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 조성돼 있었다. 해방 직전 기준으로 항공기지의 총 면적은 110만㎡에 달했으며 활주로와 숙소 등 건물 18채, 창고 10채, 부속기숙 5채, 비행기 은폐시설 18개 등이 있었다.

광주에 비행장이 처음 들어선 시점은 1939년 11월 25일로, 일명 치평리비행장은 활주로 길이 900m였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민간 항공기를 운영하는 등 애초에는 군용부지가 아니었다.

일제는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직후인 1942년 치평리비행장을 일본 육군에게 넘겼다.

이후 일본 본토 이즈미시에 있던 해군항공대 항공기 등을 옮겨 오면서 1945년 6월 '광주해군항공대'를 편성했다. 이 때 활주로도 새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활주로 길이를 기존보다 600m 늘어난 1500m로 조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다.

일제는 지금의 치평동 5·18기념공원 일대에 방공호 등 지휘부 시설을 만들고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일대에 항공유 등 연료고를, 벽진동 사월산에 탄약고를 건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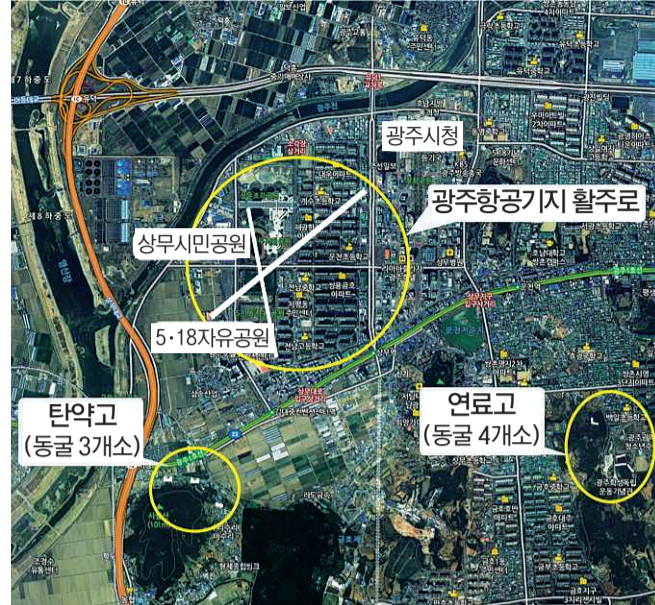
해군 항공대가 해안가도 아닌 광주에 들어선 이유로 전문가들은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뛰어들 비행사들을 직접 양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제는 아·태전쟁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 미군이 직접 상륙할 경우 전화(戰禍)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특히 1944년 10월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하자 일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서해안 지역에 군 비행장을 잇따라 건설하며 방비를 강화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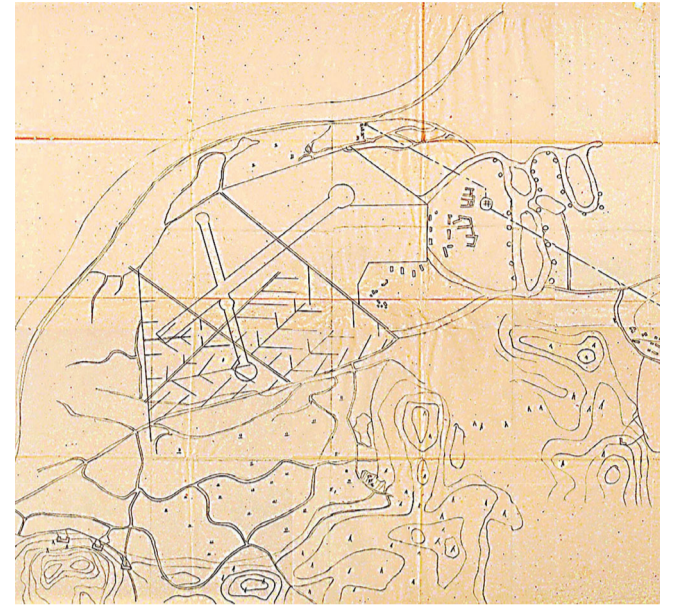
광주항공기지는 일제의 해군 항공대 조종사 양성 제도인 '요카렌'(予科練) 양성기지가 됐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요카렌은 일본 해군 비행예과 연습생이나 해군소년항공병을

## ■ 활주로 위치도



## ■ 항공기지 위치도(1945)



줄여 부르는 말로, 일제 말기 부족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급조된 훈련제도다. 요카렌이 가미카제특공대원으로 동원됐던 것을 감안하면 광주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자살특공대원이 됐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노무자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를 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

비행장 건설과 관련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수는 정확하게 기록된 바가 없다. 과거 '대일전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파악한 '광주해군항공대' 동원 피해자는 12명이지만, 실제로는 마을 인근 주민들을 타치는대로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숙박 환경뿐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받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중노동을 하며 수 개월씩을 견뎌내야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술 기록 또한 남아있지 않으나, 화순에 살던 김세원씨가 남긴 자서전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짐작케 하는 글이 실려 있다.

김씨는 자서전에서 "1943년 강제동원된 아버지를 면회하러 겨울 광주비행장 건설 현장에 갔을 때를 '갈대 지붕은 하늘이 보여 눈보라가 함바(건설 현장에 마련된 식당) 안까지 새어 들어와 동상에 걸리고, 음식이 적어 굶주리며 일본놈 헌병의 감시 속에서 중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어 추위와 굶주림에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썼다.

한편 6·25전쟁 이후 상무지구와 삼촌리 주변 지역은 군용지로 편입됐고, 1951년 미군 공병대가 상무지구를 훈련장으로 개조하면서 비행장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광주 항공기지 부지는 1952년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1964년 광산군 신촌리 비행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상무대비행장으로 이용됐다. 일제가 만든 군용 부지가 명맥을 이어가면서 결국 5·18민주화운동 때 광주시민을 탄압하는 군부의 주둔지로 이어진 것이다.

광주항공기지는 그 이후로도 40여년동안 이용되다 1995년 상무대가 장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항공유·탄약 저장한 수십미터 인공 동굴 강제동원 조선인의 피·땀·눈물 고스란히

## 화정동에 남은 유류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4기 동굴과  
마복동 사월산 3기 동굴, 대표 군사 시설  
물품 보관·이동 위해 직선 형태로 조성

일, 패전 전까지 항공유·가스톨유 등 비축  
1945년 패전 후 방치...6·25편 국군탄약고로  
현재 1기 외 예산 부족 탓 균열·누수 방치

광주일보가 최근 찾은 화정동 동굴은 일제 시대부터 설치돼 있던 붉은 철제 격자 문 너머로 수십여년 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동굴은 일제시대 일본군 비행장과 관련된 지하시설이다. 일제가 광주시 서구에 지은 '광주 항공기지' 활주로 등은 자취를 감췄지만, 항공기 연료와 탄약 등을 저장하기 위해 광주·전남·북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 구축한 인공 동굴은 80여년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것이다.

녹이 슬어 '깍깍' 소리를 내는 철문 잠금 장치를 풀고 들어간 동굴 내부에서는 의외로 동굴 특유의 눅눅함이 아닌 선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말굽 모양으로 뚫어놓은 동굴 내벽은 마치 콘크리트를 여러 겹 쌓아 올려 아치형 구조를 만든 것처럼 보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판자를 대고 콘크리트를 부어 가며 동굴을 건설한 흔적이 있었다. 매끈한 벽면에 반듯한 직선 형태로 만들어진 동굴은 수풀이 무성한 주변 산지와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도 풍기고 있었다.

동굴 안은 앞 뒤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 뿐이었고, 수십여m 길이의 동굴을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해 걷다 보니 끝이 안 보이는 듯한 착각도 불러일으켰다. 강제 동원돼 어둠 속에서 동굴을 파내야 했던 조선인들에게는 한없이 어두운 심연이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앞마당에 남아 있는 4기의 동굴과 마복동 사월산에 파 놓은 동굴 3기 등은 일제의 대표적인 군사시설이다.

화정동 동굴은 일제의 동굴 중에서 가장 긴 동굴이자 직선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품을 보관하

고 이동하기 편리하게 하면서도 적의 폭격과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든 것이다.

각 동굴의 폭은 2.25m 안팎이며, 높이는 2.8m 수준이다. 길이는 짧게는 55.65m에서 길게는 81.95m까지 다양하며, 그 중 한 동굴은 중심부에 폭 3.98m, 높이 3.45m로 넓어지는 구간도 갖고 있다. 인근 사유지에 조성돼 있는 한 동굴은 비슷한 규모에 'ㄱ'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 동굴은 양쪽 끝에 출입구를 각각 조성해 통기가 잘 통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앞 3기 중 2기는 기념관 건설 과정에서 동굴 끝을 일부 철거해 현재는 한쪽 끝이 막혀 있다.

화정동 동굴 연구를 주도해 온 신주백 박사(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은 "일본군이 패전 이후 미군에게 전달한 보고서 상 화정동 동굴은 연료고로 활용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제는 패전 직전까지 동굴에 항공91휘발유, 항공87휘발유, 항공광유, 알코올, 석유, 항공85휘발유, 항공80휘발유, 가스톨유(피마자유) 등을 비축해 뒀다"고 설명했다.

동굴은 비행장으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데, 이는 미국 공군들에게 연료고의 위치를 들켜지 않기 위한 조치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흙을 파내다가 동굴 위쪽으로 쌓아 올려 야산을 조성하는 위장 전술을 적용하기도 했다는 것이 신 박사의 연구결과다.

또한 전쟁 말기 철이 부족해지자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동굴 내벽을 만드는 등 급조한 흔적도 남아 있다.

동굴은 1945년 8월 일제의 패전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다. 화정동 주민들은 동굴에서 기름이 든 드럼통 등을 꺼내와 기름집에 팔았고, 6·25전쟁이 터진 이후로는 국군 탄약고, 인민군 주둔지 등으로 이용됐다. 국군은 전쟁 이후 육군화학학교의 연막탄 체험 화생방 훈련장, 보병학교 훈련장 등으로 활용했다.

신주백 박사는 "광주 화정동 동굴은 전국적으로도 일제가 만든 동굴 중 일직선으로 가장 긴 특이한 동굴이자 광주에 얼마 남지 않은 일제 항공 시설의 잔재로서 의미가 깊다"며 "항공 시설로서 일제가 광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이자 강제 동원된 광주, 전남·북 조선인들의 피와 땀, 고통이 섞인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동굴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동굴 1기를 제외하고 전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동굴 바닥에는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동굴 내벽과 바닥 곳곳이 세월을 못 이기고 금이 가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 흘러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지난 2015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조사한 안전관리등급은 C등급(보통 등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어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한 상태)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인근에 있는 일제 동굴 2기.



일제가 만든 화정동 동굴 내부.